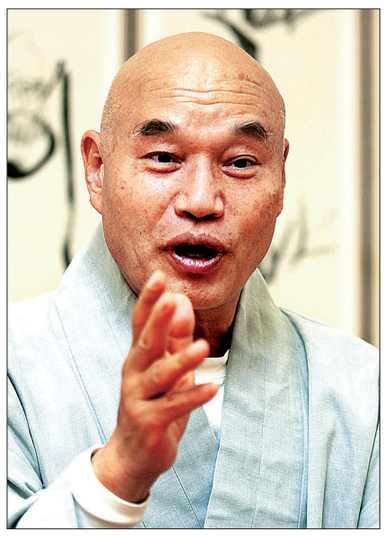
대강백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한 '법성게'



무비 스님이 풀어 쓴 김시습의 법성게 선해

설잠 스님 찬, 무비스님 강설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10자에 화엄 요체 드러낸 법성게 선과 화엄 회통시켜 선리로 해석

해동화엄의 초조로 일컬어지는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간단명료하게 간추려 210글자로 표현한 것이 법성게(法性偈)이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에서 시작해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로 끝나는 7언(言) 30구(句)의 게송으로 법계연기사상(法界緣起思想)의 요체를 서술했다.

이 30구의 게송 210자에 그림을 더해 보충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이다. 한마디로, 의상 스님이 210개의 글자와 여러 개의 네모난 그림을 그려서 〈화엄경〉에서 밝힌 법계연기사상을 서술한 그림 시(圖詩)를 말한다. 화엄일승법계도는 법계도인(法界圖印)과 법성게(法性偈)로 구성돼 있는데, 의상 스님은 화엄사상을 하나의 도인(圖印)과 7언 30구 210자의 게송으로 드러낸다. 이를 깨달음의 경지에 나타난 우주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법계도(法界圖)' 라 하고, 바다에 삼라만상이 도장을 찍은 듯이 다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해인도(海印圖)' 라고도 한다.

이 '화엄일승법계도' 를 매월당 김시습(설잠 스님)이 주해를 내고 서문을 써서 '법계도' 의 사상을 설명했다. 그것이 〈화엄일승법계도주(華嚴一乘法戒圖註)〉이다. 조선시대의 천재 학자이자 생육신의 한 명인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는데, 법호가 '설잠(雪岑)' 이다.

김시습은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두고 후대 사람들이 표면적인 교리해석에 치우치자 "동토의 의상법사가 처음 이 그림을 만든 것은 삼세간과 십법계의 장엄하고 다함이 없는 뜻을 나타내어 몽매한 사람을 인도한 것이다. 전문의 구학이 거듭 부연하고 유포하여 변기와 녹초가 세간에 두루 가득하게 되었으니, 왕자로 탄생하였으나 이미 서인이 된 것이다."라고 탄식하면서, 기존의 교학적 해석과 달리 선사(禪師)의 안목으로 선리(禪理)에 맞게 다시 해석하였다. 법계도 30구의 구마다 주(註)를 달았으며, 〈증도가〉 〈벽암록〉 등 선미(禪美)가 풍기는 선시(禪詩)로 착어했다. 그러나 선적 표현 가운데서도 경전의 요체를 잘 파악하여 선의 어록을 구사하면서 '법계도' 의 참뜻을 밝힌다.

이 〈화엄일승법계도주〉를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했다.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에 수록된 설잠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주〉를 얻어 번역하고 탐색하면서 강설을 써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무비 스님〈사진 위〉은 〈법성게〉의 게송 가운데 '능입해인삼매중' 에 대한 기존의 오류를 바로 잡으며 올바르게 해설했다. '능입해인삼매중(能入海印三昧中) 번출여의부사의(繁出如意不思議)' 로 이어져서 '능히 해인삼매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부사의한 경계를 무한히 만들어 낸다' 로 풀이하면서, "능입(能入)은 능인(能人)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한 번 잘못 표기하게 되니 그것이 그렇게나 고쳐지지 않고 세상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다. 다음 구절인 번출(繁出)이라는 말과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법성게〉의 게송 구절구절에 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밝힌다. 조선시대의 설잠 스님이 주해를 내고 선(禪)과 화엄(華嚴)을 원융(圓融) · 회통(會通)시켜 선리로 해석한 법성게를, 이 시대의 대강백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해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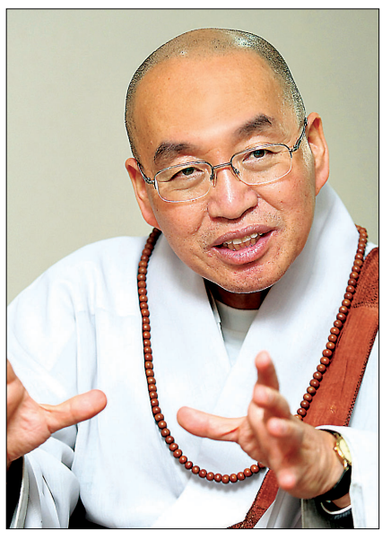
▲저자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1977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서 200여 스님과 300여 재가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중이다. 또한 다음 카페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전 81권) 〈신 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전 2권) 〈법화경 강의〉(전 2권) 〈신심명 강의〉 〈임제록 강설〉 등 다수가 있다.

"북한 사람들 마음이 남한으로 기울면 평화통일 가능"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1만 2천원



평화 전문가들, 탈북민 등과 나눈 기록 저자, "도약 원한다면 통일밖에 없다"

법륜 스님〈사진 오른쪽〉은 즉문즉설로 잘 알려진 유튜브 스타이자, 행복을 전파하고 다니는 행복전도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랜 시간을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한국 정부가 평화와 교류,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때도 스님은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을 외쳐왔다. 1998년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고 탈북자 지원에도 앞장섰다. 또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만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과 시간의 산물이며, 직접적으로는 탈북민, 그리고 스님이 조직한 통일의병을 대상으로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올해 우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분단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를 목격하였다. 훗날 역사는 올해의 사건들을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장면이나 은둔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흥분을 안겨주었다. 이제 드디어 길고 긴 휴전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슴에 품게 되는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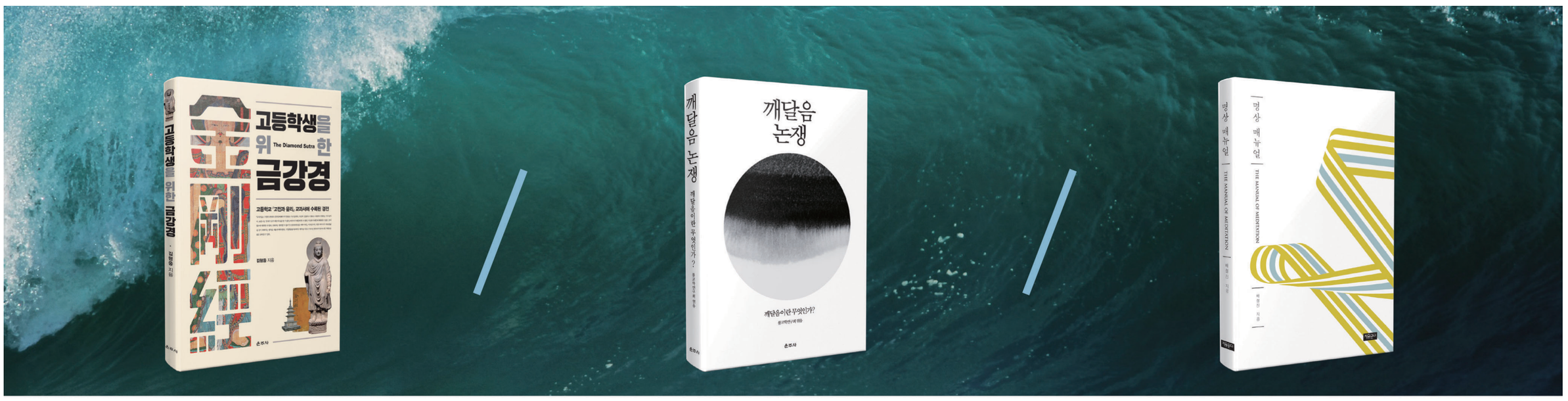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과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과는 이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닐까.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체제도 다르고 국민정서도 다르고 경제적 격차도 이렇게 큰데 어디까지 교류할 수 있을까, 괜히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닐까. 이쯤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 책에서 스님은 말한다. 통일 없이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는 없다고.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쭉 성장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책만 바꾸면, 기업만 잘하면, 이 시기만 지나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방 압축성장은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경제는 장기침체에 들어와 있으며 사회와 개인 모두 전반적 무기력에 빠져있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이어진 안보불안과 전쟁위협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를 갈등과 공포로 몰아넣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발전은커녕 내일의 안녕을 말할 수도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 답답하게 억눌린 우리의 기상을 살리기 위한 선택지는 평화, 그리고 통일 밖에는 없다. 무턱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외치는 게 아니다. 책에는 왜 통일이 우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함께 가야 할지 정치 · 경제 · 국제관계 · 사회 · 역사 · 문화 측면에서 충실히 설명돼 있다. 현재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다른 나라의 외교사례를 읽어보면 막연히 통일하면 손해 아냐, 라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법륜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남한 중심의 평화 통일 방법은 하나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남한과 합치자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남한 중심이 되고 평화적 방식으로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북한이 남한과 합치자고 스스로 선택하면 평화적인 통일은 가능해요." 김주일 기자

▲저자 **법륜 스님**은?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 메시지를 전하는 수행자이자 제 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다. 특히 현대인들의 불안과 소외감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쉽고 명쾌한 즉문즉설(卽問卽說)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전한다. 또 개인의 행복과 사회문제는 결코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환경 · 구호 · 평화통일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국제평화와 이해 부문), 2007년 민족화해상, 2011년 포스코 청암상(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스님의 행복〉 〈야단법석〉 등 다수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